이재 학맥의 낙학

호락논쟁과 그 연원

호락논쟁(湖洛論爭)을 달리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이라고 한다. 또 논쟁은 논변(論辨)이라고도 부른다. 그 용어만 봐서는 철학사를 모르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우선 '인물성동이논쟁'은 논쟁의 내용을 철학적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고, '호락논쟁'은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의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붙인 이름임을 일단 기억해 두자. 그래서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 이름만 달리 쓰고 있는 형편이다.

일단 논쟁의 성격에서 보면 조선 전기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과 쌍벽을 이루는데, 그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두 논쟁은 주희 성리학에서 본성의 이발(已發)과 미발(未發)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나온 논쟁이다. 사단칠정논쟁은 본성이 이미 정(情)으로 발동한 이후의 문제라면, 인물성동이논쟁은 본성이 정으로 발동하기 이전에 인간과 물건의 본성이 같은지 다른지 논하는 논쟁이다.

사실 인간과 물건의 본성이 같은지 다른지의 문제는 성즉리(性卽理)에서 보면, 본성이 모두 같다고 하겠다. 하지만 『맹자집주』에서 "인의예지의 순수함은 사람과 물건이 다르니 물건이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거나 『대학혹문』에서 "사람과 물건이 타고난 기품(氣稟)의 차이에 따라 사람의 성과 물건의 성이 다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인물성동이논쟁은 사람의 본성과 동물을 포함한 물건의 본성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는 성리학 내부에서 이론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견해 같지만, 본성을 떠나 사물을 인식하거나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이다. 논쟁을 시작한 두 사람은 인성과 물성에 대해 모두 관점에 따라서 같거나 다르게 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간(李柬, 1677~1727)은 한 근원인 일원(一源)과 다른 몸이라는 이체(異體) 개념으로,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본성에 세 가지 층위가 있다는 성삼층설(性三層說)로 대응하였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어느 관점을 위주로 보는 가에 달려 있다.

사실 어떤 사물들이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이 보편적이라면 보편성이 되고, 차이점에서만 본다면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도 보편성과 특수성 하나만 붙잡아 '같음'과 '다름'을 주장하는 데는 나름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호락논쟁의 발단

그렇다면 호락논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율곡 학맥을 이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제자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문하생인 외암(巍巖) 이간과 남당(南塘) 한원진 사이의 우연한 논변으로 촉발되었다.

한원진은 한홍조(韓弘祚, ?-1712) 및 최징후(崔徵厚, ?-1715)와 서신 등을 왕래하며 토론을 벌였는데, 한원진의 편지를 받은 한홍조는 자신과 최징후가 보낸 편지와 한원진의 답서를 가지고 이간을 방문하면서 둘 사이의 논쟁이 연결되었다. 이간과 한원진은 둘 다 권상하 문하의 동문이었지만, 그때까지 서로 이름만 알았지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 이간은 편지글들을 자세하게 읽은 뒤에 한원진의 견해를 반박하는 글을 최징후에게 보냄으로써 둘 사이 논쟁에 불이 붙었다. 1713년까지 5년여에 걸쳐 외암과 남당 사이에 편지를 보내면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한원진은 인간과 물건 본성의 다름을, 이간은 같음을 주장하였다.

이 논변은 크게 보아 인간과 물건의 본성이 같은지 다른지의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과 미발일 때 마음의 본체가 순수하게 선한지의 '미발심체순선논쟁(未發心體純善論爭)'과

성인과 보통 사람의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의 '성범심동이논쟁(聖凡心同異論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락논쟁의 경과

한원진과 이간의 이러한 학술 논쟁은 이후 학계에 급속히 퍼져 나갔다. 이간의 학설은 주로 낙하(洛下) 지역이라 일컫는 서울·경기 지역의 학자들이 주로 지지하여 낙론(洛論) 또는 낙학(洛學)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고, 한원진의 학설은 호서(湖西) 지역으로 일컫는 충청 지역의 학자들이 주로 지지하여 호론(湖論) 또는 호학(湖學)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호락논쟁을 촉발하고 이 논쟁에 적극 참여한 학자들은 율곡 계열의 노론 학자들이었다. 그래서 호락 논변은 노론 학계의 사상의 분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낙론에 속한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이간 외에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 도암(陶庵) 이재(李縡), 여호(黎湖) 박필주(朴弼周, 1665~1748), 기원(杞園) 어유봉(魚有鳳, 1672~1744), 역천(櫟泉) 송명흠(宋明欽, 1705~1768),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 1702~1772) 등을 들 수 있다. 호론의 대표적 학자들로는 한원진 외에 병계(屛溪) 윤봉구(尹鳳九, 1681~1767), 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 1683~1741), 운평(雲坪) 송능상(宋能相, 1710~1758),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 1727~1798) 등이 있었고, 매봉(梅峰) 최징후(崔徵厚, ?~1715) 및 낙론을 지지한 김창흡의 문인인 정암(正庵) 이현익(李顯益, 1678~1717) 등은 호론의 학설에 동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호학에 속하는 윤봉구의 제자만 해도 235명이나 되고, 호락논쟁의 주요 쟁점들은 근 200여 여년에 걸쳐 조선 후기 성리학의 주요 논점으로 다루어진다. 이를 통해 호락 논변이 매우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방대한 규모의 논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낙학 견해를 대표했던 이재

이재는 사상적으로 율곡 학맥에서 낙학의 종지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의 낙학은 이간의 인물성동론에 직접 영향을 받았을까? 보통 호론과 낙론을 한원진과 이간의 설에 따라 양쪽으로 나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세밀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다. 비록 그의 주장은 미발의 순수성 확보를 위해 기질의 개입을 논의하지 않거나 성인과 보통 사람의 마음은 그 본체에서 같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이간을 비롯한 낙론계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원진과 서로 대립했던 이간의 주장과 같은 설을 펼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특히 이재의 논쟁에서 이간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고, 다만 문인들 사이에서는 이간에게 적극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점은 이간과 무관하게 이재 낙학적 입장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음을 뜻한다.

어떻든 이재가 호학을 두고 논변한 대상은 한원진이 아니다. 그를 이어 호학의 중심 역할을 했던 병계 윤봉구를 통해 진행하였다. 수암 권상하를 방문하거나 평소 윤봉구와의 교류도 있었던 이재는 호학 내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주장에는 이간이 주장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기질의 맥락을 중시하는 호론의 반대편에서 본체인 리(성)와 일치를 꾀하는 낙학의 문제의식을 드러내었다. 이재의 성리설은 호락논쟁에서 호학과 대비되는 사람과 물건의 본성이 같다는 '인물성동(人物性同)', 발동하지 않았을 때 마음의 본체가 선하다는 '미발심체선(未發心體善)', 성인과 보통 사람의 본마음이 같다는 '성범심동(聖凡心同)'을 공유한다. 특히 한원진과 더불어 호학의 윤봉구, 심조(沈潮, 1694~1756)와의 논쟁 그리고 「한천시(寒泉詩)」를 통

해 낙론계의 여론을 대변하였으며, 이러한 이재의 입장은 한천정사의 강학을 통해 문인들에게 고스란히 계승된다.

여기서 윤봉구와 논변한 '성범심동(聖凡心同)'의 일부만 살펴보기로 하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는 기호 선비와 왕복한 논변이 많다. 그 가운데 상세한 것이 윤봉구와 왕래했던 논변이다. 윤봉구는 자는 서응(瑞膺), 병계는 호로서 권상하 문인인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 가운데 한 사람으로 덕산(德山)의 가야산(伽倻山) 옥병계(玉屛溪)에서 강학하였고, 학설은 남당 한원진과 공통점이 많았다.

1735년 윤봉구는 호학의 심설(心說) 2개를 이재에게 질정해 달라고 청하였다. 첫째는 심은 기로서 맑고 탁하고 순수하고 잡된 차이가 있어서 성인과 보통 사람이 다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인과 보통 사람은 본성뿐만 아니라 마음도 원래는 같고, 다만 다른 점은 신체의 혈기가 맑고 탁하고 순수하고 잡된 차이로 말미암아 성인과 보통 사람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다. 여기서 첫째는 한원진의 학설을 설명한 성범심부동설(聖凡心不動說)이고, 둘째는 낙론계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성범심개동설(聖凡心皆動說)이다.

이에 대해 이재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곧 심은 기로서 반드시 본성과 기를 합쳐서 설명해야 하며, 기만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하지만 기의 속성이 비록 맑고 탁하고 순수하고 잡된 차이가 있더라도 그 근본은 깨끗할 뿐이고, 그 본체의 깨끗함은 성인과 보통 사람이 똑같으니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요지였다.

이처럼 이재는 마음은 기로만 설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성을 겸하여 보아야 완전하다고 하였고, 기질만 가지고 논하면 성인과 보통 사람이 다르지만, 기의 깨끗한 근본은 본성과 분리할 수 없어서 같지 않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처럼 이재의 학설은 심체순선설(心體純善說)로서 이간의 견해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

이어 두 차례 더 논변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이것을 부연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세 번째 편지에서 리와 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기불상리(理氣不上離)'의 관계와 리가 기의 주인이 된다는 '리위기주(理爲氣主)'의 뜻을 제시하였다.

사실 이 문제는 주희 성리학 내부에서 볼 때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의 어느 한 방향만을 밀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게 한 일이 그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전자는 자연히 순수한 리가 드러나는 이상적 인간성을 대표한다면, 후자는 기질의 영향으로 드러나는 현실적 인간성을 대표한다. 그런 인간을 바라보는 이상론과 현실론은 각각 장단점을 가진다. 곧 전자는 인간을 믿고 긍정하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방적이고 변화를 긍정하는 측면이 있다면, 후자는 인간의 타락과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복고적이고 보수적 예법을 고수하며 문명과 야만을 엄격히 구분하여 현 질서를 옹호할 여지가 있다. 반면 전자는 지나치면 퇴폐와 방종과 무질서에 빠질 수 있고, 후자는 억압과 침체와 좁은 시야에 갇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논쟁을 조선 후기 당시 시대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어쩌면 이재의 목적은 근원적 동일성을 천명하는 그 자체에 있었다기보다는, 확고한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인욕의 사사로움을 제거하는 부단한 배움의 과정을 강조하는 데에 있었을 것이다.

낙학을 계승한 문인들

이재의 문인들은 이재의 학설만이 아니라 이간의 학설에도 적극적 관심을 보인다. 물론 서로 간에 이론이 없지는 않았다. 이간과 이재의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고, 이재와 그의 문

인 녹문 임성주 사이에도 그랬다. 이재의 문인 가운데 학행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는 김원행·박성원·송명흠·임성주 등이 있는데, 박성원과 송명흠은 김창협 계통의 김원행과 함께 낙학을 계승하여 평생토록 인물성동론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것과 결이 약간 다른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면 아래 두 사람이다.

임성주는 초년에는 스승의 설을 계승하여 다름이 없었으나 중년 이후에는 성동론(性同論)을 버리고 성이론(成異論)을 주장하였는데, 다만 성범심동설(聖凡心同論)을 지켰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젊은 시절 한원진과 이간의 논변을 접했을 때 이간의 설에 마음이 더 와닿았지만, 중년 이후에 볼 때 이간의 심론(心論)은 문제가 없지만, 성론(性論)은 합당치 않다고 보고,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였다고 하다. 그래서 그는 낙학이나 호학 모두 리와 기를 분리하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를 강조하는 그 철학의 관점을 보아야 한다. 그의 동문이 그에게 '기를 리로 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기일원론의 관점에서 철학을 펼쳤는데, 리의 범주에서 다룬 내용을 기에 넣고 논의했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따로 떼어내 뒤에서 그의 글을 분석하면서 별도로 다루겠다.

이재의 제자 목산 이기경(李基慶, 1756~1819)도 스승의 정맥을 잇고 있지만, 낙학의 인물성동론을 견지한 스승의 학설을 묵수(墨守)한 것이 아니라, 동론과 이론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종합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이론에 관한 이기경의 견해는 「변한남당동이고중어(辨韓南塘同異攷中語)」와 「서독(書牘)」과 「답권생경별지(答權生炅別紙)에 나타나 있다. 이기경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지 않기에 소개해 보았다.

이 글은 인물성동이논쟁의 사상적 흐름을 직접 다루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재 학맥의 인물 이야기를 다룰 때 간간이 이와 연관된 내용이 등장할 것을 미리 고려하여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당시 학계의 흐름이 이 논쟁을 제외하면 핵심이 빠지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학자들은 당시의 학풍과 사상의 풍토를 떠나서 학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최영진, 『조선조 유학사상사의양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한국사상사연구회, 『인성물성론』, 한길사, 1994.
홍정근, 『호락논변의 전개와 현대적 가치』, 학고방, 2001.
유지웅, 「도암 이재의 성리설 연구」, 『양명학』, 제67호, 한국양명학회논문집, 2022.
이천승, 「도암 이재와 그 문인들의 낙학적 사유」, 『한국철학논집』 제64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20.